제 128 편

예수의 성년 초기

128:0.1 (1407.1) 성년기에 접어들면서, **나사렛 예수**는 땅에서 정상이며 보통 사람으로 살아 갔고, 계속 그렇게 살았다. **예수**는 다른 아이들이 오는 것과 똑같이 이 세상으로 왔고, 부모를 선택하는 데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일곱째이자 마지막 자신 수여, 즉 필사 육체의 모습으로 육신화(肉身化)를 실천할 행성으로서 이 특별한 세계를 선택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밖에 그는 세상에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나타났고, 다른 필사자들이 이 세계에서, 또 비슷한 세계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역의 아이로서 자라고 환경의 변천과 씨름하였다.

128:0.2 (1407.2)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자신을 수여하는 두 가지 목적을 반드시 기억하여라:

128:0.3 (1407.3) 1. 필사 육체를 입고서 한 인간의 일생을 끝까지 사는 체험을 통달하는 것, 즉 **네바돈**에서 그의 통치권을 완전히 얻는 것.

128:0.4 (1407.4) 2. **우주의 아버지**를 시공 세계에 거주하는 필사자들에게 드러내는 것, 바로 이 필사자들이 **우주의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더 효과 있게 인도하는 것.

128:0.5 (1407.5) 모든 다른 생물의 이익과 우주의 이점은 부수되는 것이요, 필사자로 자신을 수여하는 이 주요 목적에 2차적인 것이었다.

1. 스물하나 되던 해 (서기 15년)

128:1.1 (1407.6) 성년기에 도달하면서, **예수**는 가장 낮은 형태로 사는 지적(知的) 인간의 일생에 관한 지식을 통달하는 체험을 마치는 과제를 열심히, 그리고 완전히 자의식하면서 시작하였고, 이로서 자신이 창조한 우주를 제한 없이 다스리는 권한을 마침내, 완전히 얻었다. 그는 자기의 두 가지 성품을 충분히 깨닫고서 이 엄청난 일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미 이 두 성품을 하나로, **나사렛 예수**로 효과적으로 통합하였다.

128:1.2 (1407.7) **요수아 벤 요셉**은 그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필사 인간임을 잘 알았다. 이것은 첫 칭호, **사람의 아들**을 고른 데서 나타난다. 참으로 피와 살로 된 몸을 가진 자였으니, 지금도 군주 권한으로 한 우주의 운명을 주관하면서, 수고를 톡톡히 해서 얻은 수많은 칭호 가운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아직도 지닌다. **우주의 아버지**의 창조하는 말씀, 즉 **창조 아들**이 "육체가 되어 **유란시아**에서 이 땅의 사람으로서 거했다"는 말씀은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그는 수고하고 지쳤고 쉬고 잠을 잤다. 배고픔을 느끼고 그런 욕구를 먹을 것으로 채웠다. 목이 말랐고, 목마름을 물로 가라앉혔다. 그는 인간의 온갖 느낌과 감정을 체험하였다. "모든 일에 너희처럼 시험을 받았으며" 고통을 받다가 죽었다.

128:1.3 (1407.8) 이 땅의 다른 필사자와 똑같이, 지식을 얻고 경험을 쌓았으며,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지혜로 만들었다. 세례를 받기까지,

아무런 초자연의 힘을 이용하지 않았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받은 인간 자질의 일부가 아닌 어떤 수단도 사용하지 않았다.

128:1.4 (1408.1) 인간이 되기 전의 존재로 지녔던 속성에 관하여 언급하면, 이를 자신의 몸에서 비웠다. 대중을 위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사람과 사건들에 관한 지식을 전적으로 스스로 제한하였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참된 사람이었다.

128:1.5 (1408.2) 영원히, 영화롭게 이것은 참말이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느낌으로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높은 통치자이라. 우리처럼 모든 점에서 단련되고 시험 받았으되 죄가 없는 군주를 우리가 가졌느니라." 자신이 고통 받고, 시험 받고 단련되었기 때문에, 혼란과 곤궁에 빠진 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살필 수 있다.

128:1.6 (1408.3) **나사렛** 목수는 자기 앞에 닥친 일을 충분히 이해했지만, 인간 생애가 자연히 흘러가는 경로를 따라서 살기를 택하였다. 이 중에 어떤 문제에서 이처럼 기록되었다시피, 그는 필사 인간에게 정말로 본보기였다: "이 정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 같이, 너희 속에 있도록 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났은즉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자기를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생물의 형태를 취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사람으로 모습을 입었은즉,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도 복종하였느니라."

128:1.7 (1408.4) 인간 가족에서 모든 다른 사람이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필사자로 살았으며 "그는 육체로 있던 시절에 무척 자주, 모든 악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에게, 간절한 느낌으로 눈물을 흘리기까지 기도와 간구를 드렸느니라. 그리고 믿었은즉 그의 기도가 효력이 있었느니라." 따라서 자비와 이해심으로 형제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도록, 모든 면에서 그들과 같이 지음받는 것이 당연하다.

128:1.8 (1408.5) 그는 자기가 인간의 성품을 지녔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그 인간 성품은 자명한 것이었고, 언제나 인간 성품이 그의 의식 속에 있었다. 그러나 신다운 성품에 대해서 말하면, 언제나 의심과 추측의 여지가 있었고, 적어도 세례 받는 사건 바로 전까지, 이것이 참말이었다. 신성(神性)의 자각은 느렸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드러났다. 신성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를 자각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열세 살이 채 안 되었을 때, 그가 사람으로 살면서 처음으로 초자연적 일이 일어난 것과 함께 시작되었다. 신의 성품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이 체험은, 육체로 있는 동안 두 번째 초자연적 체험을 거칠 때 끝났다. 이 사건은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따라서 일어났고, 이 사건은 봉사하고 가르치는 공생애(公生涯)의 시작을 표시했다.

128:1.9 (1408.6) 한 번은 열세 살 때, 한 번은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두 번 하늘의 방문이 있던 사이에 육신화된 이 **창조 아들**의 생활에서 아무런 초자연이나 초인간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기는 해도, **베들레헴**의 아기였고 **나사렛**의 소년이요 젊은이였던 이 **나사렛** 사람은 실제로, 한 우주의 육신화된 **창조자**였다. 그러나 결코 이 힘을 조금도 쓴 적이 없다. 또한 인생을 살면서, **요한**에게 세례 받은 날까지, 수호 세라핌의 안내를 제외하고, 하늘 존재들의 안내도 받지 않았다. 이처럼 증언하는 우리는 무엇에 관하여 말하는가 사정을 알고 있다.

128:1.10 (1408.7) 그래도 육체를 입고 살았던 이 여러 해 동안, 그는 참으로 신다웠다. 실제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한 **창조 아들**이었다. 통치권을 얻는, 순전한 필사자 체험을 법적으로 완수하고 나서, 일단 공생애를 채택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대중 앞에서 서슴지 않고

인정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이요 끝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서슴지 않고 선언했다. 후일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컬었을 때, 그는 조금도 마다하지 않았다: **영광의 주**, **우주의 통치자**, 모든 창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만민의 주,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어느 세계에 어떤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을 가진 **하나님**, 우주의 **전능자**, 이 세계를 창조한 **우주 지성**,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몸에 감춘 이, 만물을 채우는 충만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몸 안에 담고 계신 이, 하늘과 땅의 **창조자**, 우주의 지지자, 온 땅의 재판관, **영생 수여자**, **참 목자**, 세상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는 **선장**이라고.

128:1.11 (1409.1) 순전히 인간다운 생활로부터, 인간 속에서, 인간을 위하여, 이 세상의 인류에게, 그리고 모든 다른 세계를 위하여 신의 직분을 자의식(自意識)하는 후기에 들어간 뒤에 이 칭호들이 적용되자, 그는 어느 것에도 결코 반대하지 않았다. **예수**는 그에게 적용된 오직 한 가지 칭호를 사양했다. 한때 **이마누엘**이라 일컬음을 받았을 때, 단지 “내가 아니라, 그는 내 형이라”하고 대답했다.

128:1.12 (1409.2) 언제나, 땅에서 생활의 규모가 커진 뒤에도,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온순하게 복종하였다.

128:1.13 (1409.3) 세례를 받은 뒤에 그는 진지한 신자와 감사하는 추종자들이 숭배하도록 버려두고 개의치 않았다. 가난과 씨름하고, 가족을 위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려고 두 손으로 수고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은 짙어지고 있었다. 하늘을 짓고 인간의 존재로서 지금 살아 가고 있는 바로 이 땅을 지은 이가 자신임을 알았다. 바라보고 있는 큰 우주에 두루, 하늘 존재들의 무리도 마찬가지로, 이 **나사렛** 사람이 사랑하는 군주요 **아버지**인 **창조자**인 것을 알았다. 이 여러 해 동안 내내, 심오한 긴장감이 **네바돈**

우주를 휩쓸었다. 하늘의 모든 눈이 줄곧 **유란시아**에, **팔레스타인**에 쏠렸다.

128:1.14 (1409.4) 이 해에 **예수**는 **요셉**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성화 예식을 치르려고 **야고보**를 성전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요셉**을 데리고 가는 것이 의무라고 판단했다. 가족을 다루는 데 **예수**는 결코 조금도 편애를 보인 적이 없었다. 여느 때 다니던 **요단** 강 유역의 길로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요단** 강 동쪽 길로 **나사렛**으로 돌아왔고, 이 길은 **아마투스**를 통과했다. **요단** 강을 내려가면서, **예수**는 **유대**인의 역사를 **요셉**에게 일러주었고, 돌아오는 길에 강 동쪽의 이 지역에 거주했다는 전통이 있는, 이름난 **루벤 · 갓 · 길르앗** 부족들의 경험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128:1.15 (1409.5) **요셉**은 형의 일생의 사명에 관하여 유도하는 질문을 많이 했으나 이 대부분의 물음에 **예수**는 다만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하고 대답하곤 했다. 그러나 이 사사로운 토론에서 여러 말씀이 흘러나왔고, 후일에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들 가운데서 **요셉**은 이를 기억했다. **요셉**과 함께, **예수**는 **베다니**에서 세 친구와 더불어 이 유월절을 지냈고, 이 축제 기념 행사에 참석하려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었다.

2. 스물둘 되던 해 (서기 16년)

128:2.1 (1409.6) 이 해는 **예수**의 동생들이 청년기의 문제와 적응에 따르는 특별한 시련과 고난에 부딪치는 몇년 중 한 해였다. **예수**는 이제 일곱

살에서 열 여덟 살에 이르는 동생들이 있었고, 이들이 새로이 지적 및 감정적 생활을 자각하는 데 적응하도록 돕느라고 계속 바빴다. 청년기 문제들이 어린 동생들의 생활에서 일어남에 따라서, 그는 이처럼 그러한 문제들과 맞붙어 씨름해야 했다.

128:2.2 (1410.1) 이 해에 **시몬**은 학교를 졸업했고, **예수**의 옛날 소년 시절의 친구이자 항상 대기하여 그를 방어했던 석공(石工) **야곱**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몇 차례 가족 회의를 연 결과, 소년들이 모두 목수 일에 손대는 것이 현명치 않다는 결정이 내렸다. 직업을 다양화함으로 그들이 건물 전체를 세우는 계약을 받을 준비가 될 것이라 생각되었다. 또 한편, 세 사람이 전시간 목수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바쁘지는 않았다.

128:2.3 (1410.2) **예수**는 이 해에 주택의 끝 손질과 가구 만드는 일을 계속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카라반 수선 작업장에서 보냈다. **야고보**가 작업장 지키는 일을 교대하기 시작했다. 이 해의 후반에, **나사렛** 근방에서 목수 일이 뜸할 때, **예수**는 **야고보**에게 수선 작업장을 맡기고, **요셉**을 집 벤치에 두었고, 한편 그는 대장장이와 함께 일하려고 **세포리스**로 건너갔다. 금속을 가지고 여섯 달 동안 일했고, 모루 일에 어지간한 기술을 쌓았다.

128:2.4 (1410.3) **세포리스**에서 새 일자리를 잡기 전에, **예수**는 정기 가족 회의를 열고 그때 열여덟 갓 넘은 **야고보**를 엄숙하게 임시 가장으로 임명했다. 동생에게 마음을 다하여 지원하고 충분히 협조하기로 약속했고,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야고보**에게 복종하겠다는 정식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부터 **야고보**는 가족을 위하여 완전한 재정 책임을 맡았고, **예수**는 동생에게 주마다 정해진 돈을 냈다. **예수**는 다시 **야고보**의 손에서 고삐를 빼앗지 않았다. **세포리스**에서 일하는 동안, 필요하다면 밤마다 집으로 걸어갈 수 있었지만, 날씨와 다른

이유들을 대면서, 일부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참 동기는 **야고보**와 **요셉**에게 가족을 책임지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서서히 가족이 혼자 서게 만드는 과정을 시작했다. 새 계획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조언을 주고 도움되는 제안을 하려고, 안식일마다 **예수**는 **나사렛**으로 돌아왔고 필요한 경우에는 때때로 주중에 왔다.

128:2.5 (1410.4) 여섯 달 동안이나 **세포리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예수**에게 이방인의 생활 관점을 더 잘 알게 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이방인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았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의 사는 습성과 이방인의 생각에 대해서 자세히 공들여 연구하였다.

128:2.6 (1410.5) **헤롯 안티파스**의 고향인 이 도시의 도덕 수준은 카라반 도시 **나사렛**의 수준에도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세포리스**에서 여섯 달 머무른 뒤에, **예수**는 기꺼이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구실을 찾았다. 그가 소속되어 일하던 집단은 **세포리스**와 새 도시 **티베리아스**, 두 곳에서 공공 사업에 종사하기로 되었고, 그는 **헤롯 안티파스**의 감독 밑에서는 어떤 종류의 일자리도 상관하기 싫었다. **예수**의 견지에서 다른 여러 이유로 그가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였다. 수선 작업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가족의 일을 몸소 지시하는 일을 다시 맡지 않았다. 그는 작업장에서 **야고보**와 함께 일했고, 가능한 한 **야고보**가 집의 감독을 계속하도록 두었다. 그는 **야고보**가 가족 경비를 관리하고 가정 예산을 처리하는 것을 다치지 않은 채로 두었다.

128:2.7 (1410.6) **예수**는 바로 그러한 현명하고 생각 깊은 계획으로, 가족 일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마침내 물러서기 위하여 길을 준비하였다. 가족의 임시 우두머리로서 **야고보**가 2년 동안 경험을 가졌을 때, 그(**야고보**)가 결혼하기 꼭 2년 전에, **요셉**이 가족 기금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았고, 집의 일반 관리를 맡았다.

3. 스물셋 되던 해 (서기 17년)

128:3.1 (1411.1) 이 해에, 네 사람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의 압박이 조금 덜어졌다. **미리암**은 우유와 버터를 팔아서 어지간히 벌었고, **마르다는** 천 짜는 데 솜씨 있는 사람이 되었다. 수선 작업장의 구입 가격은 3분의 1이 넘게 지불되었다. 형편이 좋아서 유월절을 치르기 위하여, **시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예수**는 3주 동안 일을 쉴 정도였다.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오랫동안 나날의 노동에서 벗어난 기간이었다.

128:3.2 (1411.2) 그들은 **데카폴리스**의 길로, **펠라・게라사・필라델피아・헤스본・예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했다. 바닷가 길로 **리다・요파・케자리아**를 지나치고, 다음에 **갈멜** 산을 돌아서 **프톨레마이스**로,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이 여행으로 인하여 **예수**는 **예루살렘** 지역 북쪽의 **팔레스타인** 전체에 익숙하게 되었다.

128:3.3 (1411.3) **필라델피아**에서 **예수**와 **시몬**은 **다마스커스**에서 온 한 상인(商人)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나사렛**에서 온 형제를 크게 좋아하게 되었고, 그래서 함께 자기의 **예루살렘** 본부에서 멈추자고 고집하였다. **시몬**이 성전 행사에 참석한 동안에, **예수**는 잘 교육받고 많이 여행한 사람, 세상일에 훤한 이 사람과 이야기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상인은 카라반 낙타를 4천 마리 넘게 소유했고, **로마** 세계 전역에 걸쳐 사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었다. **예수**에게 **다마스커스**로 와서 그의 동양 수입(輸入) 사업에 손을 대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자기 가족을 그렇게 멀리 떠나는 것이 정당하다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아득히 먼 도시들, 그리고 극서와 극동의 더욱 먼 나라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았다. 이 나라들에 대해서 카라반 승객과 안내자들이 말하는 것을 귀가 닳도록 전에 들었다.

128:3.4 (1411.4) **시몬**은 **예루살렘** 방문이 대단히 즐거웠다. 새 계명의 아들들이 유월절에 성화 예식을 치를 때, **시몬**은 정식으로 **이스라엘** 연방에 가입되었다. **시몬**이 유월절 예식에 간 동안에, **예수**는 방문자들 무리와 섞였고, 수많은 개종한 이방인들과 함께 흥미 있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졌다.

128:3.5 (1411.5) 아마도 이 모든 접촉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스테반**이라는 이름의 젊은이,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과 만난 것이었다. 이 젊은이는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하는 길이었고, 유월절 주간 목요일 오후에 우연히 **예수**를 만났다. 둘이서 **아스모니아** 궁전을 구경하며 거니는 동안, **예수**는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은 생명의 길과 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하여 네 시간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스테반**은 **예수**의 말씀에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고, 결코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

128:3.6 (1411.6)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의 가르침을 믿게 된 바로 그 **스테반**이었다. 이 초기의 복음을 대담하게 전파한 것 때문에 그는 성난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새 복음에 대하여 **스테반**이 자기의 견해를 선포하면서 보인 특별한 대담성은 어느 정도, 전에 **예수**와 가졌던 이 회견에 직접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그러나 **스테반**은 15년쯤 앞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갈릴리** 사람이, 나중에 세상의 **구원자**라고 자신이 선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결코 털끝만큼도 짐작하지 못했다. **스테반**은 **예수**를 위해서 오래지 않아 죽게 될 운명이었고, 이처럼 새로이 생성되는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되었다. **유대**인의 성전과 그 전통적 관습을 공격한 값으로 목숨을 바쳤을 때, **타르수스** 시민,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경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 **그리스**인이 신앙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가 보았을 때, **사울**의 가슴 속에 어떤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 이것은 마침내 그로 하여금 **스테반**이 목숨을 바쳐 싸운 그 운동을 지지하게 만들었다. 후일에 **사울**은 과감하고 꺾일 줄 모르는 **바울**, 기독교의 유일한 기초를 세운 사람은 아니라도, 기독교의 철학자가 되었다.

128:3.7 (1412.1) 유월절 주간이 지나고 첫 일요일에, **시몬**과 **예수**는 **나사렛**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다. **시몬**은 이번 여행에서 **예수**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았다. **예수**를 언제나 사랑했지만, 이제 그는 가장인 형을 비로소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골을 통해서 여행하고 길가에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들은 가슴을 털어놓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목요일 한낮에 집에 다다랐고, **시몬**은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느라고 그날 밤, 가족을 늦게까지 붙들어 두었다.

128:3.8 (1412.2)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낯선 사람들, 특히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시몬**이 보고하여 **마리아**는 상당히 마음이 언짢았다. **예수**가 어째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가졌는가, 어째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고 싶어 하는가, 가족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128:3.9 (1412.3) 갈수록 더 **나사렛** 가족은 눈앞에 닥친 여러 인간적 문제에 정신을 빼앗겼다. **예수**의 앞날의 사명을 언급하는 일이 뜸하였고, 그 자신도 앞날의 생애에 대하여 입을 여는 일이 아주 드물었다. 어머니는 그가 약속의 아이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일이 드물었다. 땅에서 **예수**가

어떤 신성한 사명이라도 이룰 것이라는 생각을 어머니는 천천히 버리고 있었다.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이 방문한 것을 멈추어 돌이켜볼 때, 어머니의 믿음은 이따금 되살아났다.

4. 다마스커스 사건

128:4.1 (1412.4)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만났던 상인의 손님이 되어 **예수**는 **다마스커스**에서 이 해의 마지막 넉 달을 보냈다. 이 상인의 대표 하나가 **나사렛**을 지나면서 **예수**를 수소문하였고 **다마스커스**까지 그를 동반하였다. 일부 **유대**인의 피를 받은 이 상인은 **다마스커스**에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하나 세우는 데 엄청난 돈을 바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를 능가할 학문의 중심을 세울 계획을 품고 있었다. 이 새 사업에 우두머리가 되는 준비로, **예수**가 당장 긴 여행을 떠나서 세계의 여러 교육 중심을 둘러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것은 순전히 인간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수**가 일찍이 마주친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였다.

128:4.2 (1412.5) 대번에 이 상인은 새로 계획하는 이 학교를 지원하기로 찬성한 열두 명의 상인 및 은행가의 무리를 **예수** 앞으로 데려왔다. **예수**는 학교를 만드는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그들이 그 조직을 계획하는 데 도왔다. 그러나 언제나 다른 의무, 말하지 못하지만 이전에 지워진 의무 때문에, 그렇게 야심에 찬 사업을 지도하는 책임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를 후원하려는 사람은 집요했고, 집에서 얼마큼 번역하는 일에 **예수**를 돈을 주고 고용하였다. 한편 그와 아내, 아들과 딸들은 그들이 내민 명예를 **예수**가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애썼다. 그러나 **예수**는 찬성하려 하지 않았다. 땅에서 그의 사명이 교육 기관의 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더라도, 사람에게 빚을 져서 조금이라도 "사람의 심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128:4.3 (1412.6) 그가 지도력을 보인 뒤에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물리쳤는데, 그는 대선생으로서 **다마스커스**의 사업가와 은행가들의 인정과 환호를 받았으며, 이름 없고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 목수였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128:4.4 (1412.7) 그는 이 제안에 대하여 가족에게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 해가 저물 때, 마치 **다마스커스**의 친구들이 치켜세워 내민 제안에 전혀 유혹을 받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나날의 책임을 돌보았다. 이 **다마스커스** 사람들도, 후일에 온 **유대**인 사회를 뒤집어 엎은 **가버나움** 시민, 그리고 그들의 총 재산으로 샀을지 몰랐던 명예를 감히 물리친 예전의 **나사렛** 목수, 이 두 사람을 연결 짓지 않았다.

128:4.5 (1413.1) **예수**는 아주 슬기롭게, 일부러 생애의 여러 사건을 분리시키려고 머리를 썼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들이 단 한 사람이 행한 일로 연결되지 않았다. **알렉산드리아**와 경쟁할 학교를 **다마스커스**에 창립하는 기회를 물리친, 바로 이 이상한 **갈릴리** 사람의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것을 그는 후일에 여러 번 들었다.

128:4.6 (1413.2) 땅에서 얻는 체험의 어떤 모습들을 분리하려고 애썼을 때 염두에 두었던 한 가지 목적이 있었으니, 다능하고 눈부신 경력 쌓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그러한 경력은 후일의 세대로 하여금 그가 실천하고 가르친 진리에 복종하는 대신에, 그 선생을 숭배하게 만들 것이었다. **예수**는 인간으로 이룬 업적의 기록을 쌓음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가르침 대신에 다른 데 한눈 팔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추종자들이 그에 관한 종교를 만들 유혹을 받으리라는 것, 그런 종교가 그가 세상에 선포하려 의도한 하늘나라 복음과 경쟁이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아주 일찍부터 깨달았다. 따라서 그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대신에, 가르치는 그 선생을 높이는, 자연스러운 이 인간적 성향에 이용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나 그의 파란 많은 생애에서 억제하려고 한결같이 애썼다.

128:4.7 (1413.3) 바로 이 동기가 또한 땅에서 다채롭게 살았던 일생의 여러 기간에 어째서 그가 다른 칭호로 알려지도록 버려두었는가 설명한다. 또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부당한 영향이라도 미쳐서 자신들의 정직한 확신을 버리고 그를 믿도록 이끌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인간의 지성을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이용하지 않으려 했다. 그의 가르침에서 드러나는 영적 실체에 마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128:4.8 (1413.4) 이 해가 저물 때가 되자 **나사렛** 가정은 상당히 순조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가 집을 떠나 있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번 돈을 계속 **야고보**에게 넘겨주었고, 아주 작은 금액만 당장 개인적으로 쓸 비용으로 남겨 두었다.

128:4.9 (1413.5)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 땅의 사람,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저 평범한 사람과 아주 비슷하게 된 듯하였다. 그 수여가 바로 이런 방법으로 펼쳐지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예정하셨다.

5. 스물넷 되던 해 (서기 18년)

128:5.1 (1413.6) 이때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벗고 **예수**가 비교적 자유를 얻은 첫해였다. **야고보**는 **예수**의 조언과 재정적 도움을 얻어 가정을 아주 훌륭하게 관리하였다.

128:5.2 (1413.7) 이 해의 유월절 다음 주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한 젊은이가, 이 해 얼마 뒤에 **팔레스타인**의 바닷가에 어떤 지점에서 **예수**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의 무리가 만나는 것을 주선하려고 **나사렛**으로 왔다. 이 회담은 6월 중순으로 정해졌고, **예수**는 **알렉산드리아**의 저명한 **유대**인 다섯 명을 만나려고 **케자리아**로 갔다. 그들은 자기네 도시에서 한 종교 스승으로서 그에게 자리를 잡으라고 간청했고, 시작하라는 권유로서 주요 회당에서 하잔에게 조수(助手)가 되는 자리를 내밀었다.

128:5.3 (1414.1) 이 위원회의 대변자들은 **알렉산드리아**가 전 세계를 위하여 **유대**인 문화의 본부가 될 운명을 가졌다, **유대**인의 관심사의 **헬라**파 경향은 **바빌로니아** 학파를 실질적으로 앞섰다고 **예수**에게 설명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역에 걸쳐 반란이 있으리라는 불길한 소문을 **예수**에게 상기시켰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이 어떤 폭동을 일으키더라도 이는 민족의 자살 행위와 다름없으리라, **로마**의 철권은 석 달 안에 반란을 짓밟으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고 그에게 장담했다.

128:5.4 (1414.2) 그들이 하고 싶어 했던 말을 전부 듣고서, **예수**는 그들이 흉금을 털어놓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알렉산드리아**로 가기를

사양하면서,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애써서 그들이 부여하려 했던 명예에 그가 관심이 없는 듯이 보여서 그들은 어리둥절했다. **예수**와 작별하기 전에, **알렉산드리아** 친구들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회담하려고 **케자리아**로 오는 데 든 시간과 경비를 보상하는 뜻으로 돈 봉투를 **예수**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그는 마찬가지로 돈을 물리치며 말했다. “**요셉**의 집은 자선금을 받은 적이 없소. 내 팔이 건강하고 동생들이 일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빵을 먹을 수 없소이다.”

128:5.5 (1414.3) **에집트**에서 온 친구들은 집을 향해 돛을 달았고,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큰 소동을 벌인 사람, 배 만드는 **가버나움** 사람의 소문을 후일에 들었을 때, 그가 장성한 **베들레헴** 아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큰 선생이 되라는 초청을 긴 말 없이 그렇게 물리친 사람, 이상하게 행동하던 바로 그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것을 거의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128:5.6 (1414.4) **예수**는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이 해의 나머지는 전생애에서 가장 사건이 없었던 반년이었다.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보통 일과에서 벗어나 잠시 이 휴식을 즐겼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많이 대화를 나누었고, 자신의 인간 정신을 통솔하는 데 크게 진전을 보았다.

128:5.7 (1414.5) 그러나 시공 세계에서 사람의 일은 오랫동안 사건 없이 진행되지 않는다. 12월에 **야고보**는 **예수**와 사사롭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나사렛**의 젊은 여인 **에스타**와 깊이 사랑에 빠졌다, 주선해 줄 수 있다면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셉**이 곧 열여덟이 될 터이고, 가족의 임시 가장으로서 수고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으리라는 사실에 주의를 불러일으켰다. **예수**는

야고보가 결혼하기 전에, **요셉**이 집안 일의 관리를 맡도록 적절히 훈련시킨다는 조건으로, 2년 뒤에 **야고보**가 결혼하는 데 찬성하였다.

128:5.8 (1414.6) 이제 일이 터지기 시작했다. 결혼 이야기가 퍼졌다. **야고보**가 결혼 일로 **예수**의 승낙을 얻는 데 성공한 것은 **미리암**으로 하여금 자기 계획을 가지고 용감히 오빠인 가장에게 다가가게 만들었다. 석공인 아들 **야곱**은 한때 **예수**의 보호자로 자처하였고, 지금은 **야고보**와 **요셉**의 사업 동료이며, 오랫동안 **미리암**과 결혼하려고 애썼다. **예수** 앞에 **미리암**이 자기의 계획을 내놓았을 때, 그는 **야곱**이 찾아와서 여동생을 얻기 위하여 정식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마르다**가 제일 나이 먹은 딸로서 임무를 맡을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때가 오자마자, **미리암**이 결혼하도록 축복해주겠다고 약속했다.

128:5.9 (1414.7) 집에 있을 때, 그는 한 주에 세 번 야간 학교에서 줄곧 가르쳤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자주 성서를 낭독하고,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가르쳤고, 대체로 **이스라엘** 연방에서 자격 있고 존경받는 **나사렛** 시민으로서 처신하였다.

6. 스물다섯 되던 해 (서기 19년)

128:6.1 (1415.1) **나사렛** 가족이 모두 건강한 가운데 이 해가 시작되었고, **마르다**가 **룻**을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일을 제외하고, 아이들이 모두 정규 학교를 마치게 되었다.

128:6.2 (1415.2) **예수**는 **아담** 시절 이후에, 땅에서 나타난 남성 중에 가장 튼튼하고 세련된 한 표본이었다. 몸은 훌륭하게 성장했다. 머리는 활발히 움직였고, 날카롭고, 사물을 꿰뚫어보았다. 즉 같은 시대 사람들의 평균 정신 수준과 비교해서, 그의 지능은 엄청나게 발달했다. 그의 정신은 정말로 인간으로서 신다웠다.

128:6.3 (1415.3) **요셉**의 재산이 없어진 이후로, 가족의 재정은 최상으로 조건이 좋았다. 카라반 수선 작업장에 대한 마지막 지불금을 치렀고,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으며 몇 년 동안 처음으로 얼마큼의 저축이 남았다. 이것이 참말이고, 다른 동생들을 **예루살렘**으로 첫 유월절 예식을 위하여 데리고 간 일이 있었으니까, **예수**는 (회당 학교에서 막 졸업한) **유다**가 처음으로 성전을 방문하는 데 함께 가기로 했다.

128:6.4 (1415.4)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동생을 데리고 가면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 **요단** 강 유역으로, 같은 길로 돌아왔다. 급한 기질과 아울러 강한 애국심 때문에, **유다**는 이미 **나사렛**에서 몇 번이나 하찮은 문제에 말려들었다.

128:6.5 (1415.5) 시간이 되자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성전을 처음으로 방문하러 갔다. 성전의 바로 그 광경은 혼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유다**를 뒤흔들고 짜릿하게 만들었는데, 이때 **베다니** 사람 **나사로**를 우연히 만났다. **예수**가 **나사로**와 이야기하고, 합동으로 유월절 저녁을 주선하려 애쓰는 동안, **유다**는 모두에게 진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가까이에 **로마**인 경비병 하나가 서 있었는데, 지나가는 어느 **유대**인 여자에게 예의에 벗어나는 말을 몇 마디 던졌다. **유다**는 불 같이 분개하여 얼굴이 달아올랐고, 그 군인에게 직접, 귀에 들리는 거리 안에서, 예절 없는 것에 대하여 바로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이 불경에 가까운 어떤 태도를 보여도

이에 무척 민감했다. 그래서 경비병은 당장에 **유다**를 체포했다. 이것은 젊은 애국자에게 너무 지나쳤다. **예수**가 경계하는 눈으로 주의를 줄 수 있기 전에, 그는 이제까지 참았던 반(反)**로마** 감정을 담은 비난을 거침없이 퍼부었다. 이 모두가 일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다. **예수**를 동반하여, **유다**는 당장에 군대의 감옥으로 끌려갔다.

128:6.6 (1415.6) **예수**는 **유다**를 위해서 즉석 재판이나, 아니면 그날 저녁 유월절 축하에 때를 맞추어 석방을 얻어내려고 애썼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튿날에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도 감히 한 **유대**인에 대한 고발을 심의하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다**는 체포된 뒤 다음날 아침까지 갇혀 있었고, **예수**는 함께 감옥에서 지냈다. 그들은 율법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완전한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이 있을 때 성전에 있지 않았다. 그 다음 어느 유월절에, 열심당을 위한 선전 활동과 관련하여 **예루살렘**에 갔을 때까지, **유다**는 이 정식 예식을 몇 년 동안 치르지 못했다. 그가 속한 열심당은 애국 조직이었고, 그는 그 당에서 크게 활약했다.

128:6.7 (1415.7) 감옥에서 보낸 둘째 날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 **예수**는 **유다**를 위해서 군대의 판사 앞에 섰다. **예수**는 동생이 나이 어린 것을 사과하고, 계속된 설명이었지만 동생의 체포로 이끈 이 사건의 도발적 성질에 관하여 분별 있는 말을 하여 그 경우를 다루었기 때문에, 재판관은 그 **유대**인 젊은이가 사납게 분을 터뜨린 것에 아마도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의견을 표현했다. 그러한 경솔한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말라고 **유다**에게 경고한 뒤에, 그들을 내보내면서 **예수**에게 말했다. "당신은 그 소년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소. 당신들 모두에게 걸핏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리이다." 그 **로마**인 판사의 말은 진실이었다. **유다**는 **예수**에게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고, 언제나 그

문제는 바로 이런 성질을 가졌다. 곧 생각 없고 지혜롭지 못한 애국심의 폭발 때문에 국가 당국과 충돌하는 것이었다.

128:6.8 (1416.1) 그날 밤을 지내려고 **예수**와 **유다**는 **베다니**로 걸어갔다. 어째서 유월절 저녁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가 설명하였고 이튿날 **나사렛**을 향하여 출발했다. **예수**는 가족에게 어린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것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지만, 돌아온 뒤 3주쯤 되어, 이 사건에 관하여 **유다**와 길게 이야기했다. **예수**와 이 말을 나눈 뒤에, **유다** 스스로가 가족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이 고달픈 체험 전부를 통해서 가장인 형이 참을성을 보이고 관용을 베푼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128:6.9 (1416.2) 이것은 자기 가족의 한 식구와 함께 **예수**가 마지막으로 참석한 유월절이었다.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피붙이와 가졌던 가까운 관계가 점점 더 끊어지게 될 것이었다.

128:6.10 (1416.3) 이 해에 깊이 명상에 잠기는 시간은 **룻**과 그 놀이 친구들 때문에 가끔 중단되었다. 이 꼬마들의 기쁨과 어린이다운 즐거움을 같이 나누려고, **예수**는 언제라도 세상과 우주를 위하여 미래에 할 일 숙고하는 것을 다음으로 미룰 준비가 되어 있었다. 꼬마들은 **예수**가 여러 번 **예루살렘**으로 여행한 체험담을 듣는 데 지칠 줄 몰랐다. 또한 동물과 자연에 대하여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크게 즐거워했다.

128:6.11 (1416.4) 수선 작업장에서는 아이들을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었다. **예수**는 모래와 나무토막과 돌을 작업장 옆에 마련해 놓았고, 아이들은 떼 지어 재미를 보려고 모여들었다. 놀다가 지치면, 대담한 아이들은 작업장을 들여다보았고, 주인이 바쁘지 않으면, 용감히 들어가서 말하곤 했다, "**요수아** 아저씨, 나와서 우리에게 신나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자 아이들은 손을 잡아 끌면서 그를 바깥으로 이끌곤

했다. 작업장의 모퉁이 옆에 가장 좋아하는 바위 위에 **예수**가 앉고, 아이들은 **예수** 앞에 반원을 지어 땅 바닥에 앉았다. 작은 꼬마들이 얼마나 **요수아** 아저씨를 좋아했는지! 꼬마들은 웃는 것, 마음껏 웃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제일 작은 꼬마들 가운데 하나나 둘이 그의 무릎에 기어오르고 거기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표현하는 모습을 놀라워하면서 올려다보는 것이 버릇이었다. 아이들은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는 아이들을 사랑했다.

128:6.12 (1416.5) 친구들은 그가 정치나 철학 또는 종교에 관한 깊은 토론을 하다가 어떻게 그가 그렇게 갑자기, 아주 완전히 바뀌어, 다섯 살에서 열 살에 이르는 이 꼬마들과 명랑하고 즐겁게 장난하는 기분에 젖는가, 그의 지적 활동의 범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동생들이 자라고 여가를 더 얻게 됨에 따라서, 그리고 조카들이 생기기 전에, 그는 이 꼬마들에게 많이 주의를 기울였다. 하지만 조카들을 많이 즐길 만큼 땅에서 오래 살지는 않았다.

7. 스물여섯 되던 해 (서기 20년)

128:7.1 (1416.6) 이 해가 시작되자, **나사렛 예수**는 그가 폭 넓은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똑같이, 적어도 때가 올 때까지는 **사람의 아들**로서 자신의 인격이 이 능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충분히 확신하였다.

128:7.2 (1417.1) 이때 자신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계에 대하여, 많이 생각은 했어도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모든 생각의 결론이 산 꼭대기에서 드린 기도에 한 번 나타났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누구이든, 내가 무슨 능력을 행사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 왔고, 언제나 복종하리이다." 그래도 광대한 한 우주에 관하여 말하면, 이 사람이 **나사렛** 근처에서 일터로 오갈 때,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춰져 있도다"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참말이었다.

128:7.3 (1417.2) 이 해 내내, 가족의 일은 **유다**를 제쳐놓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몇 년 동안, **야고보**는 막내 동생과 문제가 있었는데, 그는 정착해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생계비의 제 몫 내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는 집에서 살고 싶어 했지만, 가족 유지비에서 자기 몫을 버는 데 성실하지 않았다.

128:7.4 (1417.3) **예수**는 평화로운 사람이었고, **유다**의 호전적 행위와 잦은 애국심의 폭발 때문에 이따금 당황했다. **야고보**와 **요셉**은 그를 집에서 쫓아내는 데 찬성했으나 **예수**는 찬성하려 하지 않았다. 참을성이 몹시 요구될 때, **예수**는 오직 이렇게 조언하곤 했다. "참아라. 어린 동생이 먼저 더 좋은 길을 찾고 그 길 안에서 자제하여 너희를 따르도록, 지혜롭게 조언하고 너희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라." **예수**가 지혜와 사랑으로 주는 조언은 가족의 분열을 막았고 그들은 함께 살았다. 그러나 결혼할 때까지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128:7.5 (1417.4) **마리아**는 **예수**의 앞날의 사명에 대하여 입을 여는 일이 드물었다. 이 화제가 나올 때마다, **예수**는 다만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나이다." 가족이 **예수**를 가까이 두고 의존하려는 경향을 벗어나게 만드는 어려운 과제를 그는 거의 마쳤다. 사람들을 위하여 실제로 봉사하는 일을 더 활발히 시작하려고, 이 **나사렛** 집을 때때로 비울 수 있는 날을 위하여 서둘러 준비하고 있었다.

128:7.6 (1417.5) **예수**의 일곱 번째 수여에서 첫째가는 사명은 인간의 체험을 얻는 것, **네바돈** 통치권의 획득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

바로 이 경험을 쌓으면서, 그는 **유란시아**와 지역 우주 전체에게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최상으로 계시하였다. 이 목적에 우연히 따르는 것으로, 그는 또한 **루시퍼** 반란에 관련되었던 이 행성의 복잡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 착수했다.

128:7.7 (1417.6) 이 해에 **예수**는 여느 때보다 더 여가가 많았고, 수선 가게의 경영에 **야고보**를 훈련시키고 또한 집안 일을 지도하도록 **요셉**을 훈련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마리아**는 그가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들을 두고 어디로 가려고? 무엇을 하려고? 어머니는 이미 **예수**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거의 버렸다.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단지 맏아들의 심중을 헤아릴 수 없었다.

128:7.8 (1417.7) **예수**는 이 해에 식구들과 개인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산으로 오르는 길에, 그리고 시골 길을 통해서, 오랫동안 걸을 때 자주 그들을 데리고 가곤 하였다. 추수하기 전에, **유다**를 **나사렛** 남쪽에서 농사 짓는 삼촌에게 데리고 갔으나 **유다**는 추수가 끝난 뒤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달아났고, 나중에 **시몬**은 호수에서 **유다**가 어부들과 함께 있음을 발견했다. **시몬**이 그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을 때, **예수**는 달아난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어부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함께 **막달라**로 가서, 어부인 어느 친척의 보호 밑에 그를 맡겼다. **유다**는 그때부터 죽 결혼할 때까지, 꽤 무던하게 정규적으로 일했고, 결혼한 뒤에 어부로서 계속 일했다.

128:7.9 (1418.1) 마침내 **예수**의 남동생들이 다 일생의 직업을 고르고, 자리를 잡은 날이 왔다. **예수**가 집을 떠나는 것을 위해서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다.

128:7.10 (1418.2) 11월에 쌍 결혼이 있었다. **야고보**와 **에스타**, 그리고 **미리암**과 **야곱**이 결혼했다. 이때는 참으로 기쁜 때였다. **마리아**도 다시

한 번 행복했지만, 이따금 **예수**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큰 불안의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했다. **예수**가 소년이었을 때 했던 것처럼, 앉아서 어머니와 터놓고 이야기하면 좋으련만. 그러나 그는 한결같이 의사(意思) 표시를 하지 않았고, 앞날에 대해서 도무지 입을 열지 않았다.

128:7.11 (1418.3) **야고보**와 신부 **에스타**는 마을 서편에 작고 아담한 집으로 이사했고, 이 집은 시아버지의 선물이었다. **야고보**가 어머니의 집을 계속 지원했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그의 몫은 반으로 줄어들었다. **예수**는 **요셉**을 가장으로 정식으로 임명하였다. **유다**는 이제, 달마다 아주 충실하게 자기 몫의 돈을 집으로 보내고 있었다. **야고보**와 **미리암**의 결혼은 **유다**에게 대단히 유익한 영향을 미쳤고, 쌍 결혼이 있은 다음 날, 고기잡이 터로 떠날 때, 그는 "내 임무를 충실히 하고, 필요하다면 더 할 것"을 믿어도 좋다고 **요셉**을 안심시켰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128:7.12 (1418.4) 아버지 **야곱**이 선조들과 함께 묻혔으므로, **미리암**은 **야곱**의 집에서, **마리아**의 이웃에서 살았다. **마르다는** 집에서 **미리암**의 자리를 차지했고, 새로운 조직은 이 해가 저물기 전에 순조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128:7.13 (1418.5) 이 쌍 결혼이 있은 다음 날, **예수**는 **야고보**와 중요한 회의를 가졌다. 그가 집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야고보**에게 비밀로 말했다. **야고보**에게 수선 가게의 완전한 권리를 주었고, 정식으로 엄숙하게 그가 **요셉** 가문의 가장인 것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무척 감동스럽게 동생 **야고보**를 "내 아버지 집의 가장이자 보호자"로 세웠다. 비밀 계약을 작성하고 그들 둘이 서명했다. 수선 가게를 선물로 주는 대신에, 이제부터 **야고보**가 가족을 위하여 완전히 재정 책임을 맡으며, 이렇게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는 더 이상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 **예수**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아도 가족의 실제 비용을 치르도록 예산을 맞춘 뒤에, **야고보**에게 말했다. “그러나, 얘야, 내 때가 올 때까지, 달마다 너에게 얼마큼 계속 보내겠다. 그러나 내가 보내는 돈은 경우에 따라 네가 써야 하느니라. 이 돈은 좋게 여기는 대로, 가족의 필수품이나 즐거움을 위해 쓰거라. 병이 있을 때 쓰거나, 가족의 어느 식구에게 뜻하지 않게 생기는 긴급 사태를 대비하여 쓰도록 하여라.”

128:7.14 (1418.6) 이렇게 **아버지**의 일을 공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수**는 어른으로서 살면서 집을 떠나 둘째 국면에 들어가려고 준비했다.